



[해설] 육군 ROTC 지원자 늘리려 경쟁률 부풀렸다 03



Economy

코스피	2285.80 (+12.93)	코스닥	808.28 (-0.61)
금리 (우대금리)	2.11 (+0.01)	환율 (원/달러)	1112.20 (-3.70) (9일)

#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한 금감원장

##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소비자 보호·감독강화 방침 4분기부터 종합검사제 시행 노동이사제·키코 등 재검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종합검사제가 부활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노동이사제나 키코(KIKO)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논란도 재검토시켰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업무 청사진은 소비자보호와 감독 강화에 방침이 짙었다.

윤 원장은 “최근의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금융사들과 전쟁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순진영 기자

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오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다시 시작된다.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나 예산까지 모두 파악해 점검하는 검사 방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그는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될 수 있지만 감독의 마무리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와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제2 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와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찬반 논란이 있었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그는 “쉽지 않은 노사관계 해결하기 위해서가 많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회란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社告



### 2018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 북방경협 바람 타고 동북아 물류 새 시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1층)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본격화하면 두 나라의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도 연결돼 유럽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러기업협회 등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09~12시(오찬 제공)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 1층)
- 주 최 : 메트로경제
- 문 의 : (02) 721-9826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 “불법파견 중단... 직접고용 하라” 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지엠(GM)이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9일 사장실을 점거했다. 정부와 GM이 상생협력 M OU를 맺으며 한국지엠이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 단계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9일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젠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근로자 40여명이 사장실과 복도에서 농성 중이며 70여명이 공장 안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는 한국GM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군산공장 폐쇄로 잔류 인력 680명 가운데 생산직 200명이 전환 배치되고 나머지 480명에 대해 3년간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만약 직접고용을 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GM 관계자는 “무급 휴직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도급업체 직원들과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캡생 사장이 그들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과다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문 기자 ysw@



文 대통령, 인도 ‘악샤르담 힌두사원’ 방문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여름 분양 후끈... 2만여 가구 공급 ‘역대 최대’

(7~8월)

전국 20곳서 2만1341가구 수도권만 1만여 가구 달해

무더위에도 분양 열기가 지속된다. 10대 건설사가 통상 분양 시장 비수기인 7~8월에도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부동산규제 등으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 영향도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17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7~8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20개 단지, 2만1341가구에 이른다. 컨소시엄, 주상복합, 임대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7~8월 비수기 분양물량만 놓고 보면 올해가 역대 최대다. 이전 최고점이었던 2017년 1만5738가구와 비교해도 35% 더 많다.

2005년 이후 연도별 7~8월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2005년 4861가구 ▲2006년 7635가구 ▲2007년 1만444가구 ▲2008년 2058가구 ▲2009년 1566가구 ▲2010년 4588가구 ▲2011년 5353가구 ▲2012년 9839가구 ▲2013년 4652가구 ▲2014년 3145가구 ▲2015년 1만2868가구 ▲2016년 12868가구 ▲2017년 1만5738가

구다.

분양물량이 7~8월에 대거 몰려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월별 10대 건설사 공급 계획 물량을 보면 ▲1월 2686가구 ▲2월 5344가구 ▲3월 5025가구 ▲4월 1만807가구 ▲5월 8504가구 ▲6월 6647가구 ▲9월 1만3578가구 ▲10월 4045가구 ▲11월 1만6520가구 ▲12월 6495가구다.

연말까지 총 6만1979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7~8월에만 전체의 34%가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 분양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7~8월 10대 건설사의 분양물량 중 수

도권에서만 12개 단지, 1만2431가구(12%↑)가 나온다. 이외 5대 광역시에서 4곳, 5018가구(24%↑)가 분양된다. 지방 중소도시에선 4곳, 3892가구(22%↑)가 공급된다.

분양 물량이 7~8월에 쏠린 이유는 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미등록 분양대행업 금지 등으로 상반기 계획 물량의 일부가 하반기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가 전망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그 전에 물량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